

연중 제 19주일

제 1독서 : 지에 18, 6-9

제 2독서 : 히브 11, 1-2, 8-19

복음 : 루가 12, 32-48

# 순정이

“너희는 머리에 띠를  
끼고 등불을 켜 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루가 12, 35)

## “그 하느님만 믿고 떠날꺼여”



김기곤 신부 / 글라라 수녀원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에서 가까운 곳에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이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고자 대구로 가셨다. 그 동안 딸네 집에서 살아온 할머니는 80평생을 고향인 전라도를 벗어나 사신 적이 없던 분이셨다.

성당에 입교하기 전에 불교신자였던 할머니는 수녀원에 가까이 사신 덕분에 10여년 전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후로는 매일미사에 참여한 분이셨다. 그런 할머니가 말년에 아들 며느리 곁에서 생을 마무리 하시려고 선뜻 정든 고향과 친구들을 두고 떠나간 것이다. 떠나기 전 할머니만이 아니라 우리도 몹시 서운했었고 그래서 몇몇 친구 할머니와 함께 조출한 송별 야유회를 갖으며 서로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송별 야유회 때 할머니는 여러 번 “대구에도 하느님 계시니 그 하느님만 믿고 떠날꺼여”라고 말하셨다.

할머니가 가신 요즈음 송별회 때 들었던 할머니의 이 말이 되새겨 지고 있다. 그 때는 무심코 들었던

이 말이 자주 생각됨은 그 말 안에 아브라함이 갖었던 신앙심이 짙게 배어 있음을 음미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하느님만 보고 떠날꺼여.” 오늘 제2독서에서 들은 아브라함의 신앙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창세 12, 1)는 야훼 하느님의 명에 따라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다.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그 땅에도 하느님이 계시니 그 하느님만 보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 자신이 계획하고 설계한 길보다 순전히 하느님께서 자기 인생길에 설계자가 되어 주시고 건축가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 주실 그 곳을 향해 계획도 준비도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났다.

그는 어떤 일이든 자기 중심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삶을 꾸려가고 그래야만 남보다 더 앞선 사람으로 인정받고 인정해 주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겠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바보스러움이야말로 하느님의 개입에 의한 신적 계획과 성취로 그의 삶을 영글게 한 신앙의 지혜인 것이다.

그 하느님만 믿고 고향을 떠나가신 할머니에게도 아브라함의 생을 만드신 하느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린다. 더불어 밤중이든 새벽이든 하느님께서 할머니를 하느님 나라에 부르셨을 때도 “그 곳에도 하느님이 계시니 그 하느님만 믿고 떠날꺼여”라고 하시며 훌쩍 떠나가실 수 있으시길 축원드린다.



## 참다운 해방을 염원하며

박 대 길(벨라도)

오늘 15일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우리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와 수탈에서 해방된 날이다. 참으로 뜻 깊고 기쁜 날이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도 이 나라의 해방을 '성모 승천 대축일'에 맞추어 주셨다. 교회는 해방을 성모님의 보호와 주님의 안배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리가 해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과는 달리 '해방 50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분단 50년'과 '통일염원 50년'이라는 이 민족의 처절한 고통과 절실한 염원이 함께하고 있다.

분단 50년의 세월 동안 한 민족인 남과 북의 형제들은 두 동강으로 허리 잘린 국토의 상처를 그대로 지켜보아야만 했으며, 증오에 가득 찬 눈초리로 형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어야만 했다. 또한 남과 북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만 했고, 선택하지 못한 다른 한 쪽은 우리 조국의 일부가 아닌 찾아갈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먼 이국으로 강요당했다. 이와 함께 국경선도 아닌 휴전선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철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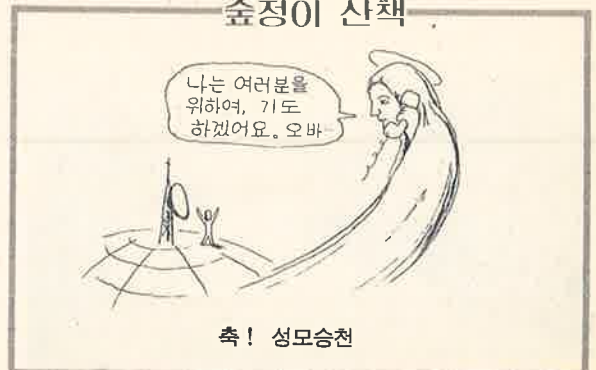
통일염원 50년의 세월은 두 동강난 국토를 다시 잇고, 증오의 눈길로 총칼을 겨누어야만 했던 적대관계를 형제적 화해와 일치로 환원하며, 세계에서 가장 먼 나라가 아니라 한 핏줄인 우리의 형제가 살고 있는 우리의 땅,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내 나라 내 땅이 되어야 함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민족의 비극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을 갖기보다는 갈라진 민족 갈라진 형제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못된 무리들이 있다. 겉으로는 '분단을 극복하자' '통일을 이루자' 하지만, 뒷전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무리들이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교만한 자, 권력자, 부자들을 거부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이들을 말하는가. 바로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는 거짓된 무리들이다. 순교선열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헐벗고 굶주려도, 뒷전에서는 일제에 아부하며 독립군을 밀고하고 잡아가두며 호위호식하고 명명거리며 산 비열한 친일파, 해방 후에도 지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권력에 빌붙어 기계적 반공이념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애국자인 양 위장하여 민족의 정기를 흐려놓은 교활한 무리들, 온갖 감언이설과 총칼로 위협하여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겪게 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일본의 모리배들과 한통속이 되어 '과거는 잊고, 새 시대의 동반자 관계'를 유식(?)하게 말하는 무리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쿠데타 세력과 이들에게 궤변으로 면죄부를 주는 무리들이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세상에 뛰어든 아들 예수로 인해 인간적인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내는 십자가 밑에서 아들 예수의 처절한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성모 마리아의 승천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 땅의 분단극복과 통일, 즉 이 민족의 참다운 해방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다가올 것이다.

### 숲정이 산책



## 우문우답(愚問愚答)이 된 광복(光復)의 느낌

— 시집은 조선족 김명옥씨 —

해방된 지 반 세기  
일제 침략의 아픔이 치유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이젠 8·  
15의 노래마저 잃어버린 세월을 우  
리는 산다.

방학중이라도 꼭 이 날만은 등교  
해서 피약별 아래서 목청 돋우어 불  
렀던 노래였건만 어느 시대 어느 날  
부터 형식적인 기념행사로 둔갑하고  
합창단에 의해서만 불려지는 노래가  
되고 말았다.

“흠 다시 만져보자/ 바다물도 춤  
을 춘다...”

광복 50년을 맞아 그 감회가 남다르리라 믿고 만난  
사람은 김명옥 씨(30).

그는 1년반 전 중국 길림성에서 시집은 조선족 새  
색씨다. 이제는 김승덕 씨(39)의 아내요, 김수일 군  
(1994년 9월1일생)의 어머니가 되어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의 친정엔 경상도가 고향이라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와 오빠 그리고 남동생이 살고 있다.

3남2녀 중 둘째딸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정착했다  
는 얘기만 들었을 뿐 어찌서 고향을 등지고 남의 나  
라에서 사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었다.

8·15라고 해서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광복의 감상'을 묻는 것부터가 어리석은 질문이었  
다.

우문우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일  
제의 만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해방의 기  
쁨을 표현해 주길 바랬지만 그의 대답은 역시 감을  
잡지 못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녀가 태어난 것부터가  
해방 20년이 지나서였고 그는 조선족 학교가 없는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국 학교에서 초·  
중·고시절을 보냈다.

한 민족 한 핏줄이 얼키고 설켜 살아도 세월은 지



아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 김명옥 씨

난 과거를 잊게 하는 법인데 그의 아  
버지도 모르는 일을 어찌 그녀가 감  
격의 내력을 알 수 있으랴.

다만 그녀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스러움과 교통, 통신의  
발달, 그리고 지방자치선거의 선택  
권이 너무 부러웠다”고 말한다.

중국 학교만을 다녔지만 집에서는  
철저하게 조선말을 사용한 덕분에  
한국에 시집을 수 있었다는 그녀였  
지만 남존여비 풍습은 납득키 어려  
운듯 “왜 그래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시어머니(60)가 지난해 영세받아 성당엘 다닌다며  
좋아하는 그녀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고 어질픈 믿음이 오히려 죄를 더 짓는 것같아 선뜻  
성당엘 못 나간다”고 말한다.

특히 오래 전에 영세받은 남편이 시간할애가 어려운  
목수일을 하기 때문에 성당과 멀어져 매우 괴로워한  
다면서 염천에 망치질하는 남편의 삶을 그리며 눈시  
울을 적었다.

3년여 동안의 서신왕래를 통해 지난 93년12월28일  
결혼한 그녀는 ‘남편이 너무 힘들게 번 돈이 아깝다’며  
친정나들이 계획도 뒤로 미루었다면서 수일이를 위한  
교육보험통장을 자랑했다.

시동생 시누이들(3남3녀)과 함께 사는 만며느리로  
서 아직도 이곳 풍습에 익숙치 못하고 특히 음식 만  
드는 게 서툴다며 시댁식구들에게 미안함을 토로했다.

광복 50년을 맞은 새색씨의 감상보다는 오히려 과  
거를 모른 채 이곳 생활에 만족하는 그녀의 모습이 더  
값진 삶이라 느끼며, 어른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36년간의 일제시대 식민지 생활과 동족상잔의  
비극은 6·25가 신세대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생각  
해 본다. 그리고 하루빨리 민족의 평화통일이 이루  
어지길 기도한다.

• 취재 : 문치상(비오)

특집 - 김반석 신부님을 모시고

# “요즈음 건강이

—해방과 남북분단의 영욕 함께한 노사제—

### \* 광복 50주년, 사제서품 50주년

올해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50년 전 12월 15일, 그러니까 해방의 기쁨으로 들떠 있던 그 해에 대구에서는 사제서품이 있었고, 올해로 희수(喜壽)를 맞으시는 김반석 신부님이 그 반열의 한 자리에 계셨다.

김 신부님의 한평생은 우리 민족의 영욕(榮辱)을 그린 역사의 축소판이다. 나라 잃은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한 신학교 생활, 민족 해방의 기쁨과 함께 한 사제서품, 곧이어 벌어진 남북분단과 6·25의 비극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노사제의 건강상태는 우리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그 때의 의미를 생생하게 기억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마치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픈 현실을 보는듯 싶어 안타깝기만 하다.

김반석(金盤石, 베네딕도) 신부님은 그간 부안(1946년), 진안(51년), 원평(60년), 황등(61년), 함열(61년), 고산(64년), 수류(66년), 월명동(69년), 임실(73년), 여산(75년), 김제(79년), 금마(81년), 서학동(85년) 등 13개 본당에서 사목하셨다. (\* 괄호 안의 연도는 부임한 해임)

만 40년의 사목생활을 마치고 1986년에 은퇴하셨으니 벌써 햇수로는 10년이나 된다. 지금은 전주시 덕진동, 전주 종합경기장 뒷편에 자리한 거성경기장 아파트 나동 102호에서, 출퇴근하는 가정부와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

### \* 열한 살에 소신학교 들어가

노사제를 찾아 뵙는 자리, 자주 찾아 뵙지 못한 터라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제일로 신부님의 건강이 염려스러운지라 어떠시냐고 묻는 말쑤에 “요즈음은 많이 좋아졌어”라고 그래도 기쁜 소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문을 열 수 있었다.



김 신부님은 우리 교구 사제들의 못자리라고 불러주는 수류(김제시 금산면 화율리)에서 1918년(주민등록은 1919년)에 태어나셨다. 신부님은, 당시 본당 주임이셨던 유루가 신부님(프랑스)의 추천을 받아 열한 살에 대구 유스티노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사정을 자랑스럽게 들려주셨다. 대구에서 2년 동안 공부한 뒤에는 서울의 동성상업학교(현 동성고교)와 대신학교를 거쳐 해방이 된 1945년에 서품을 받으셨다. 당시에 함께 공부한 분들 가운데 생존해 계신 신부님은 서울교구의 이계광 신부님과 조창익 신부님, 그리고 대구교구의 강찬형 신부님 등이라고 한다.

### \* 기억의 몇 토막

김 신부님은 첫 본당인 부안에서 6·25를 맞게 되었다. 당시에 신부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녀님들까지도 수류에 피난을 했다. 김 신부님도 고향인 수류에 피난할까 했지만, 손바닥만한 수류에 피난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 하다고 만류하는 신자들의 의견을 따라 등룡리로 피난을 했다. 열심한 신자들 덕분에 피난중에도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그 곳 신자들이 당하게

## 한 일 씽 크

씽크대 제작 및 도소매

박 신 근(분도)

김 순 동(로사)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372

☎ (0652) 253-5621

(0653) 52-7283

## PUMA 효자점

스포츠 의류, 신발류

가방, 수영복

장 재 식(베드로)

원 숙 영(가타리나)

효자 성당←→크리스탈 불링장

☎ 225-9912

##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 A/S 전문점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 84-6085, 223-5823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회장 · 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유리안나)

##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요심이 (1145) 김병오

# 많이 좋아졌어요”

한 상 갑(바오로)

될 어려움을 생각해서 김병태 회장네 선산 쪽으로 혼자서 피신길을 나섰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만 것이다. 그 만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얼마를 헤매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등룡리로 되돌아 올 수 있었다. 문득 김대건 신부님의 행적이 생각나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등룡리에 돌아오니 교우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너무나도 애를 태우고 있던 참이라 김 회장 부인(애천택)은 개를 잡아 기쁨의 축하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한 번은 먼 사무소 사환에게 발각되어 신부님을 숨겨 주던 신자들과 신부님이 붙들려 가고 말았다. 그래도 김 회장 등 신자들의 인품이 허투루 볼 수 없는 처지라서 어찌지를 못 하고 있던 참에 9·28수복을 맞게 되었다. 이때 신부님은 지서의 답을 넘어 논 두령을 헤매고, 애천택은 목 안의 소리로 신부님을 부르며 이산가족(?) 찾기를 했다고 한다.

진안 본당에 계시는 적인데, 어느 공소인지 그 이름은 잊었지만, 호랑이가 나온다는 공소가 있었다고 한다. 호랑이가 밤이면 문에 흙을 뿌려대니 신부님을 지키기 위해서 신자들이 윗목에서 야번을 썼다고 한다. 6·25가 막 지난 때라서 한들에서는 빨치산들의 습격을 피하느라 헛간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한다. 진안은 전국적으로 공소가 많은 본당인지라 30리가 넘는 길을, 그것도 재를 넘어서 미사

에 참례하는 열심한 신자들이 더러 있었다고 한다.

### \* 우리의 소망은 통일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던 우리의 선대 어른들의 모습이 문득 크게 자리를 잡는다.

나라 잃은 시절에 이리저리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민족의 비극 6·25 전란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가꾸어 온 어른들의 삶에 고개가 숙여진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50년 전 이 민족으로부터 해방은 되었다고 하나 민족 분단의 아픔이 큰 상처로 남아 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그 날이 진정한 민족 해방의 날이리라. 이 날을 염원하는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사제의 요즈음 일과는 고해성사를 청하는 낯선 신자들과 수도자들의 방문을 받는 일이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매월 첫 목요일에 가까운 덕진 성당에서 푸른 군대 미사 때 고해성사를 주신다.

출퇴근하며 신부님을 돌보아 드리는 가정부와 운전기사가 신자가 아니라는 현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 금경축을 맞으시는 신부님의 건강과 민족의 통일을 기원하며 신부님 덕을 나눴다.



**제1기 자원 봉사자 학교**  
 · 일시: 9.4~11.6(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대상: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인  
 · 접수: 8.1~8.20(수강비 2만원)  
 천주교 전주교구 사회복지회 ☎(0652) 84-5290

매일 성서 묵상 잡지  
**아급의 우물(월간지)**  
 「아급의 우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으로 당신을 초대할 것입니다.  
 · 가격: 1,000원 · 1년구독: 10,000원  
 · 연락처: 성바오로서원(☎252-3398)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0652)75-0550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황진숙(인젤라)  
 ☎ 88-7717~8

차량대여 및 임대전문 영업회사  
**(유) 국민렌트카**  
 박 일 천(요한)  
 신역에서 진안선 중간 럭키아파트 앞  
 ☎본사: 242-4442, 242-4717~9  
 군산영업소: (0654) 467-6578~9

**기아 자동차**  
 새차 구입, A/S상담, 중고차 상담.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 상 역(요셉)  
 ☎(0652)87-6301~6  
 호출기: 015-685-0312

**변원구 한의원**  
 변 원 구(예로니모)  
 허 정 자(수산나)  
 인후동 모래내 다리옆  
 ☎ 252-1783  
 253-6355~6

북녘동포에게 사랑의 편지를



# 예쁜 딸을 가진 어느 어머니께

소보영(보나) / 삼천동 천주교회

하느님께서 평화와 사랑을 가득히 전해 주시길 마음 모아 바라며 편지를 전합니다. 창문 아래 서 있는 키 큰 나무 잎새들이 서로의 잎을 비벼대며 6월의 싱그러운 바람을 전해 주고, 아이들이 학교 가느라 난리 법석을 떨고 간 방 안 들이 짜증스럽기보다는 남기고 간 흔적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아침입니다.

어머나! 문득 거실 한 쪽에 쌓아 놓은 때지난 신문의 한 면이 내 눈과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가톨릭신문. 1995년 5월 21일 일요일자. 교포 백남식 씨의 평양 축전 참가 촬영 화보에 찍힌 살찐 황소와 그 옆엔 너무도 귀여운 여자아이의 모습입니다. 뽀얀 양볼에 뽀뽀도 해 주고 한 번 껴안아 주고 싶을 만큼 예쁜 그 아이의 엄마는 누구일까?

예쁜 딸을 기르는 그 아이의 엄마를 내심 부러워하며 그 아이의 엄마에게 우정의 편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생각이 나는군요. 오늘은 특별히 두 잔의 차를 준비하여 식탁에 마련해 봅니다. 한 잔은 그 아이의 엄마에게, 한 잔은 나의 것으로. 불현듯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가슴을 치 밀고 올라 옵니다. 만나서 사람 사는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밤새 나누면서 평양 근교 어느 밭에서인가 잘 자란 감자를 푹 썰서 호호 불어가며 먹어 보고도 싶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지고 놀던 인형들을 다 자란 지금도 애지중지 합니다. 시집가서 딸을 낳으면 주겠노라고. 만날 수만 있다면 사진 속의 그 아이의 가슴에 다 안길 만큼 인형들을 안겨 주고 싶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에게만은 통일된 조국 땅에서 마음껏 누비고 다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 정상까지.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역사



안에서 길들여졌던 부끄러움이 새록새록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하신 성서의 말씀처럼 이 한 장의 편지가 사랑과 화해로 두드러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이의 모습과 꼭 닮아 있을 엄마에게도 7천만은 겨레의 소망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또 소식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이 엄마의 뉘인 한 잔의 차도 이왕 마련한 것이니 그냥 제가 마시렵니다. 다음엔 마주 앉아 차 한 잔 나누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기다리며 그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1995년 6월 31일  
성신 강림 대축일에

북녘 동포에게 통일열원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는 곳 : ☎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4 광장빌딩 5층  
북녘동포에게 사랑의 편지를 담당자 앞

## 조립식 건축 한국 건설

조립식건물, 일반공사  
경량칸막이 콘테이너  
김해선(레미지오)

☎ (0652) 75-0161  
FAX (0652) 71-6301  
휴대폰 011-659-8355

## 이전 코아 에스에스 패션

- 로가디스,이브생로랑,위크엔드
  - 버킹검,아스트라,빌트모아
  - 런던포그,크레센도,포엔모아
- 정수천(시몬)·강숙기(지다)

코아백화점 4층  
☎ 86-2884, 80-1404

## 양봉 꿀 판매

- 생산자 : 이화춘,이순덕(안젤라)
  - 종류 : 로얄제리,아카시아,밤,잡화
  - 주문연락처 :
- 황병찬(필립보) (0653) 841-8131  
김덕순(아네스) (0653) 856-0244  
박진규(글라라) (0653) 53-6735  
이순덕(안젤라) (0653) 858-7835

## (주) 한국삼베 전북총판

최고급 전통수의/Q마크획득원단제품  
삼베양말/무릎예방,땀흡수타월,무취  
이경근(안토니오) 임경란(수산나)  
전주 서부 우회도로 천하장사 옆  
☎ (0652) 212-6639, 7046  
호출기 012-682-6631

# 교 구 소 식

-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 때 : 8월15일(화)
  - 장소 :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때 : 8월15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중앙 성당
  - 주례 : 이병호 주교

- ◆ 가톨릭 사진가회 피정
  - 때 : 8월19일~20일 오후 2시
  - 장소 : 진안 어은 공소
  - 집결지 : 가톨릭센터

- ◆ 예비 신학생 모임
  - 때 : 8월20일(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 ◆ 자원봉사자 학교 개강
    - 때 : 9월4일~11월6일(매주 월요일)
    - 장소 : 가톨릭센터
    - 접수마감일 : 8월20일
- (사회복지 ☎ 84-5290)

- ◆ 성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때 : 8월19일~20일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신청 : 종교음악연구회
- (☎ 224-4128)

- ◆ 한문, 일본어교실 개강
  - 때 : 8월 14일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 주최 : 여성연합회

- ◆ 축! 영명
  - 20일(성베르나르도) 박동진 신부님

## 성소모임

- ◆ 가리파스 수녀회
  - 때 : 8월20일 오후 2시
  - 장소 : 덕진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 72-5304

- ◆ 한국외방선교회
  - 때 : 8월19일~20일 오후 4시
  - 장소 : 한국외방선교회 신학원
  - 문의 : (02) 743-7002

- ◆ 전교가르멜 수녀회
  - 때 : 8월20일 오후 2시
  - 장소 : 서신동 성당
  - 문의 : (0652) 74-9262

## ■ 권해드리는 책 ■

• **황홀한 여름의 소멸**  
 구혜영 외 6인 / 7,500원 / 바오로딸  
 박완서 씨를 비롯한 여류작가 6인의 작품모음집. 각 작가들 특유의 전개와 구성으로 삶을 바라보는 주인공들의 눈을 통해 공감하고, 현시대의 가치기준을 비판하게 한다. 화려해 보이는 삶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욕망과 누추함 속에서도 발견되는 소박한 진실을 만나게 된다.

• **나의 친구 카를 보이티와**  
 J.스비데르코스키 / 김홍래  
 4,000원 / 바오로딸

인종과 종교의 벽을 뛰어 넘는 교황과 유대인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이다. 교황과 그의 어린시절, 전쟁 중의 저항운동과 성직의 길로 나아가기까지의 친구의 눈에 비친 젊은 시절의 교황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루고 있다. 바티칸 공의회 이후 유대민족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한 컵의 물이라도 아끼자

- 저속 수도꼭지를 달자 :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꼭지에 간단한 장치를 하면 약 50%의 물이 절약된다.
- 쓰고 난 수도는 꼭꼭 잠그자 : 물을 사용할 때 계속 틀어놓고 하면 1분에 12-20리터의 물이 흘러 내려간다.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제때에 잠그기만 하면 1년에 8만리터의 물이 절약된다.
- 이를 닦을 때 : 이를 닦을 때 칫솔을 적시고 행구어내는 데 2리터면 충분하다. 그런데 수도물을 틀어놓고 닦으면 20~35리터의 물이 소비된다.

- 먼도를 할 때 : 대야에 물을 떠서 한다면 단지 4리터로 충분하므로 55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 설거지를 할 때 : 설거지통에 물을 담아서 한다면 20리터가 필요하다. 수도물을 틀어놓고 할 때는 100리터의 물이 흘러간다.
- 목욕할 때 : 욕조에 물을 채우면 약 15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 이는 15분 정도의 샤워에 필요한 물분량에 해당하므로 5분 정도의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비누질을 할 동안 샤워는 잠근다.

## 성바오로 서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터전이 되고자 합니다.

서적, 카세트테이프, 비디오, 슬라이드, CD 등

중앙성당 옆

☎ (0652) 252-3398

**메지(출논) :** 주택, 빌딩, 백매지, 흙매지

**조경 :** 고급주택정원, 전지, 정원석, 신용분위, 인류기술, 신속한 작업

장 승 용(안드레아)

☎ (0653) 52-7927(주간)  
 (0653) 855-0149(야간)

##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 · 일방X-선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최적당 부엌가구

## ENEX 전북종합전시장

박 영 근(공사가)  
 장 정 신(젼 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 75-0524

## 시상·팔상 체질 감별

〈태양, 소양, 태음, 소음〉

권 재 갑(다두)  
 정 원 미(클라우드미아)  
 중화산동2가 파출소 맞은편  
 ☎ (0652) 224-6207~9  
 황명사상건강회

## LG(금성)에어콘 총판

· 에어컨, 환온습기, 공기정화기  
 ·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난방  
 원중삼(발라바) · 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 (0652) 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연중 제19주일**

1.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시간 안내**  
14일(월) - 새벽미사 없음, 저녁미사(특전미사)  
15일(화) - 새벽 5시30분, 전 10시
2. **모임** : ①여성연합회(16일 어머니미사 후)  
②대건회(20일 장엄미사 후)
3. **금주 청소** : 동진 2, 남노 2반  
**차주 청소** : 남노 3, 중노 1반

- ◎ 8월15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금주 모임 안내** : 프란치스코 삼회 - 오늘 오후 2시, 장소 - 강당
2. **차주 모임 안내** : 성모회 - 8월20일(일) 공식미사 후, 장소 - 유아방
3.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8월15일(화) 오전 6시, 오전 10시  
※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본당 청년회 하계 수련회** :  
· 목적 - 본당 청년들의 화합을 위해  
· 일시 - 8월19일(토) ~ 20일(일)  
· 장소 - 동상면  
· 회비 - 12,000원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5시30분  
장소 - 1회합실
6. **청소 안내** : 금주 - 사랑의 샘  
차주 - 상아탑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1. **성모 승천 대축일** : 15일(화)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2. **잠 수녀님 피정** : 17~26일 영육간의 건강을 빕니다.
3. **요셉회, 해설자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4. **모임** : 꾸리아 - 오늘 오후 2시  
청년회 - 오늘 저녁미사 후  
성모회 - 17일(수) 오전 10시  
빠스카회 - 20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금주 전례** : 해설 - 최옥남  
독서 - 정승관 부부  
봉헌 - 조윤일 가족  
**차주 전례** : 해설 - 유두석  
독서 - 이상은 부부  
봉헌 - 김현덕 가족
6. **성당 청소** : 19일 - 이 땅의 빛, 밝히오리다.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1. **금주** :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Cu. (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2. **성모 승천 대축일(8월15일)**  
①축! 첫영성체(40명) : 공식미사중  
②성모 승천 기념 제2회 친선 다비드컵(테니스)대회  
공식미사 후 국수잔치가 있사오니 신자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3. **구역 반장 모임** : 17일(전 11시)
4. **차주** : ①바니의 성모Cu. (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5. **고정 전례 안내**  
①교백성사 - 평일미사 후  
②혼인 면담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③성체강복 및 조배 - 매주 첫 목요일 오전 10시  
④병자 봉성체 - 매주 첫 금요일 오후 2시  
⑤유아 세례 - 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⑥차량 축복식 - 홀수달 마지막 주일 공식미사 후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점성스런 기도와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1. **모임** : ①안나회 - 공식미사 후  
②새 영세자 모임, 성가대 - 다음주일  
③장년회 - 19일(토) 성당 회합실
  2. **어린이 첫영성체** : 15일(화) \* 첫 교백성사 - 14일(월), 오후
  3. **성모 승천 대축일 행사** : ①경축미사 - 15일(화) 10시30분  
②축하행사 - 친교의 시간 및 배구대회
  4. **본당 주보축일(여왕이신 동정 성모마리아 : 22일) 행사를 겸해서**  
성모 승천 대축일을 점성껏 지냅니다.
  5. **성당 청소** : 금주 - 천주의 성모Pr.  
차주 - 구세주의 모친Pr.
  6. **금주 전례** : 해설 - 김영신, 독서 ①김완식 ②이춘봉  
봉헌 - 김성진 가정  
**성모 승천 대축일** : 해설 - 최원규, 독서 ①남현준 ②김미남  
봉헌 - 이정우 가정  
**차주 전례** : 해설 - 김미남, 독서 ①이옥동 ②우경숙  
봉헌 - 남창욱 가정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성근

- ◎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루가 12, 40)
- 15일은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의 날
-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안내 : 의무축일(15일) - 미사시간은 주일과 동일 어린이미사는 오후 4시
- ◎ 오늘은 이발 무료봉사의 날 : 오전 9시 ~ 12시까지(이발은 사무실 뒷편)
1. **가정 방문** : 평화주공아파트 16일 후 3시 - 401동  
17일 전 9시 - 402동, 후 3시 - 403동
  2. **M.E 56차 주말 강습회** : 18일 ~ 20일(천호)  
김영중, 한중례 부부, 김광재, 장옥희 부부, 이종두, 김준례 부부,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성소 후원의 날** : 20일 공식미사 후 - 메 미사 전후 회비 납부
  4. **몽승회 1주기 정기 총회** : 15일 12시 부용집
  5. **초·중·고 교리교사 및 수련대회 교사 봉사자 단합대회** : 15일 9시미사 후
  6. **회의** : 성체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회 - 오늘 저녁미사 후  
성모회 - 16일 어머니미사 후  
자모회 - 18일 오전 10시  
임마누엘, 한빛회 - 20일 공식미사 후
  7. **종신 서원자 연수** : 16일 ~ 19일 오 말다 수녀원
  8. **감실 심합 기증** : 서울 장광자(보사)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9. **전입을 환영합니다.**